

국제 석유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또 한차례의 가격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다. 이에 따라 어떤 석유전문가는 금년 여름철에 원유가격이 배럴당 7달러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근 石油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급증가율이 이를 앞질러 금년의 油價는 침체 상

국제석유시장의

短期전망

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PIW를 비롯한 메이저들의 단기전망이다. 작년말 이래 原油가격이 50% 정도 하락함에 따라 석유시장의 앞날에 더없는 불확실성이 만연, 석유전문가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1973년과 1979년에도 그랬듯이 시장에 대한 예측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OPEC의 시장점유율 확대 드라이브는 성공을 거둘 것이나, 그러한 과정에서 油價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石油전문가들은 OPEC산유국들이 금년에 1~2 백만B/D 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이론상 산유국의 할당량을 증대시킬 것이지만,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 石油收入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OPEC가 산유 선도자의 지위에서 추종자의 지위로 역할이 바뀔 경우 시장점유율에서 적어도 50만B/D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예측의 反轉

지난 6개월동안 수요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근거로 油價를 전망했으나, 결과는 완전히 빗나가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이 기간중 非OPEC 산유국들의 공급량이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OPEC의 그것은 70년대말 이후 증대되어 오고 있다. 한편 石油수요는 1981년 이래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가을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OPEC의 기본

정책노선이 바뀌자 石油전문가들은 미래예측에 대한 접근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급의 불균형이 조정 되어가고 있음은 분명한데, 금년말에 어떻게 이 상태를 균형상태로 유도하느냐가 확실치 않다. 단지 공급과잉 사태는 필연적이므로 재고로 비축하여,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여 흡수할 수 있겠고,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을 경우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石油의 항방

非OPEC 산유국의 석유 공급은 금년에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共產圈이 石油수출을 줄이고 있는데다 美國, 캐나다 등의 경제성 없는 유전이 폐쇄되고 있으며, 또한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브라질 등으로부터 증산이 예상되지만, 그리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 제 예측간에 비교적 넓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非OPEC 산유국 특히 멕시코, 이집트의 적극적인 마케팅 자세를 상이하게 평가하는데서 유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감소량은 50만B/D 이내가 될 것이다.

OPEC는 석유수요의 증가로부터 또 非OPEC 산유국들의 공급량 감소로부터 유발되는 모든 혜택을 거두어 들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石油생산량을 10% 정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게 바뀔 때 따라 OPEC 산유국들은 지난 6개월과 같이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OPEC 石油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경우, 금년 4/4분기의 OPEC 산유량은 하루 1,750~1,8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과잉, 다시 말해 산유할당량을 초과한 물량은 여름철에 가장 많고, 겨울철 성수기에 접어드는 가을에 줄

85년 대비 86년 수요공급 예측 (단위: 백만B/D)

石油社	예측	需要計	供給				재고증감 2) 초과공급
			세계計	OPEC	NGL	非OPEC	
석유사	A	+1.0	+1.9	+1.8	+0.1	0.1	+0.5
"	B	+1.0	+1.2	+1.5	+0.1	-0.4	+0.7
"	C	+0.5	+1.6	+1.5	+0.1	0.0	+0.6
"	D	+0.8	+0.9	+1.1	+0.1	-0.3	+0.2
"	E	+0.5	+1.5	+2.0	...	-0.5	+0.5
"	F	+0.4	+1.2	+1.6	...	-0.4	+0.6
"	G	+1.1	+1.8	+1.7	...	+0.1	-0.1
정부가관예측							
	예측 A	+0.8	+0.9	+1.1	...	-0.2	0.0
	예측 B	0.8	+1.0	+1.8	...	-0.8	-0.1

(註): (1) 共產圈 순수출 포함 (2) 해상비축, 정부전략재고, 할당량초과 생산량 포함.

어 들 것이다. 그럼에도 연말의 누적 공급과잉량은 1억8,00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 수요가 예상보다 월등히 많지 않을 경우 原油의 초과생산은 없을 것이며, 구매자 역시 불필요한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감산을 누가 담당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OPEC가 현 생산수준을 지속시킨다면 비자발적 재고 비축 증가가 진행될 것 같다. 2/4분기에 비축량은 70만 B/D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油價인하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다. 현油價가 바다세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현재 필요이상의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도입량을 대폭 줄이고 비축재고로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것이다. 공급과잉이 결국 재고비축이 된다면 현상태로 보아 금년말 경에는 소비국들의 원유도입 물량이 대폭 떨어져 OPEC 및 非OPEC 산유국들이 결국 산유량을 줄이는 사태가 발발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비자발적인 재고비축이 없다면 금년에 재고의 현저한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미 겨울철 성수기에 대비한 재고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나 비축량의 대차는 매년 비슷할 것이다.

需給전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는 石油전문가들 사이에 이론이 없지만, 예상증가율에 대해서는 현저한 견해차이

자유세계 石油수급전망 (단위: 백만B/D)

	1985	1986				
		1/4	2/4	3/4	4/4	연간
需 要	45.9	47.4	45.4	45.9	47.5	46.5
재 고 증 감	-0.4	-0.9	+0.7	+0.1	+0.1	0.0
할당량초과생산량			+0.9	+1.0	+0.1	+0.5
供 給(합계)	45.5	46.5	47.0	47.0	47.7	47.0
非 OPEC, NGL	29.5	29.1	28.8	29.5	29.9	29.3
OPEC 원 유	16.0	17.4	18.2	17.5	17.8	17.7
수 요 증 감(%)	-0.2	-1.0	+3.4	+1.8	+1.9	+1.3

를 보이고 있다. 금년에 약 1.5%의 수요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이나, 극단적인 분석가들은 3%, 즉 150만B/D의 수요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油價하락에 따라 에너지의 石油代替와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다.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수요증가의 전망이다. 이 국가들은 石油소비와 경제활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油價가 떨어지고 경제가 확대되면 石油소비가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석유수출 개발도상국은 석유소비를 줄

임으로써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

石油의 需給 패턴(1985) (단위 : 백만B/D)

	1 / 4	2 / 4	3 / 4	4 / 4	연 간
需 要	47.9	43.9	45.1	46.6	45.9
재 고 증 감	-2.8	-0.3	+0.5	+1.2	-0.4
供 給(합계)	45.1	43.6	45.6	47.8	45.5
非OPEC, NGL	29.0	28.6	30.5	30.1	29.5
OPEC 원 유	16.1	15.0	15.1	17.7	16.0
수 요 증 감(%)	+0.4	-2.2	-0.2	-1.1	-0.4

